

‘라면’과 ‘낭만’

김숨, 김희선, 황진순 소설을 중심으로

Ramen and Romanticism

정미숙*

국문요약 ‘라면’은 대중적인 음식이다. 라면처럼 많은 사람이 골고루 먹고 사랑하는 음식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세대와 젠더, 계급/계층의 구분을 초월하여 라면을 먹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라면’에 쏟아지는 애증의 양가적 시선은 팽팽하여 한 테이블에 당겨 앉기 힘들다. 값싸고 맛있는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은 맛은 있으나, 건강과 미용에도 해로워 일명 ‘징크 푸드(junk food)’로 분류되기도 한다.

영양가 없고 값싼, 처절한 계급성을 담보하는 ‘끼니’인 동시에 누구에게나 미치도록 사랑받는 ‘양식’인 상반된 평가에 놓인 라면은 소설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라면을 제재로 삼고 있는 본 고의 텍스트에서 살펴본 ‘라면’은 가난한 현실의 기호이거나, 연애 혹은 이상의 매개로 드러나기도 하고 먹거리에서 삭제되는 폭력적 논리에 처단되기도 한다.

이질적 상황에 놓인 다양한 모습의 ‘라면’은 작중인물이 처한 상황과 구별의 맥락을 초월하여 역동적 변화의 장을 모색한다. ‘라면’의 면발은 역동적이고 정적이다. 라면이 취한,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의 정동을 ‘낭만’이라 부를 수 있다. 낭만 혹은 낭만성은 현실의 장벽을 넘고자 하는, 넘을 수 있는 정동의 총체이다. 라면의 ‘낭만성’은 어떻게 현실과 조우하고, 현실을 넘어서는 ‘로망’, 불멸의 ‘신화’로 재현되는가 그 시간을 추적하고자 한다.

핵심어 라면, 낭만, 음식, 정동, 징크 푸드, 로맨스, 신화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강사, bluevital33@naver.com

차례

1. 라면'과 '낭만'
2. 라면', 정체된 현실의 낭만적 모색
3. 라면', 로맨스로 완성된 대중의 기호
4. 신화가 된 라면', 불멸의 로망

1. 라면과 '낭만'

'라면'은 대중적인 음식이다. 라면처럼 많은 사람이 골고루 먹고 사랑하는 음식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세대와 젠더, 계급/계층을 막론하고 라면을 먹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시속의 말을 비틀어 표현하면, "라면을 못 먹게 된 사람은 있어도 안 먹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 한국인들이 1년에 평균 70개 이상의 라면을 먹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1인당 소비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⁰¹에 이른다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맛있고, 간단한 조리법으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음식인 '라면'이 확보하고 있는 탄탄한 대중성은 우리 안의 사회적 구분을 초월하고 획파할 수 있는 한 가능성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세대와 젠더, 계급을 간단하게 엮은 '라면'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먹는다면 평등과 공평의 광장에 함께 입장할 수 있을까 엉뚱한 상상을 잠시 해보나 현실적 맥락은 분명 다를 것이다. 라면을 '요기'로 먹는 경우와 '별식'으로 취하는 상황은 판이하다.

값싸고 맛있는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은 맛은 있으나, 건강과 미용에 해로워 일명 '정크 푸드(junk food)'로 분류되기도 한다. 영양가 없고 값싼, 처절한 계급

01 김철규, 『음식과 사회』, 세창출판사, 2020, 72쪽.

성을 담보하는 ‘끼니’인 동시에 누구에게나 미치도록 사랑받는 ‘양식’인 라면은 소설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유독 ‘라면’에 쏟아지는 애증의 양가적 시선은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라면’의 특화된 연구를 위하여 ‘라면’을 당당히 제목으로 표방한 소설과 주요 제재로 삼은 소설 중에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텍스트로 삼아 다양한 맛을 표방한 ‘라면’에 공통적 인자로 숨어있는 소설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⁰² 텍스트 속 ‘라면’은 가난 혹은 정체된 현실의 상징적 기호이거나 연애 혹은 이상의 낭만적 매개로 드러나기도 하고 먹거리에서 삭제되는 폭력적 논리에 처당되기도 한다. 겹치기도 하고 이질적 상황에 놓인 ‘라면’은 작중인물이 처한 억압과 차별, 구별의 맥락을 초월하여 역동적 변화의 장을 모색한다.

텍스트 ‘라면’이 공동으로 취한 서사 문법이자 정동은 ‘낭만’이다. ‘낭만(浪漫)’은 의외로 복잡한 단어이다. ‘로망스/로맨틱(romance/romantic)’이라 표기되는 ‘낭만’은 중세 로맨스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낭만주의 운동의 내용과 특징이라는 두 가지 문맥⁰³을 살펴야 한다. 산문 로맨스의 경우(중세 로맨스와 16세기 스페인의 산문 로맨스) ‘감상적’이고 ‘터무니 없는 과장’이 많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충만하다는 특징을 겸하고 있다. 나아가 ‘자유로운 해방된 상상력’이라는 정의와 (18세기 말부터 19세기초) ‘진정한 감정’이라는 의미도 중시된다. 나아가 비합리적인 것이나 무의식적인 것 그리고 전설적인 것과 신화적인 것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민속문화 연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⁰⁴

02 텍스트는 김숨, 『내 비밀스런 이웃들』, 『럭키슈퍼』는 『간과 쓸개』, 문학과지성사, 2011; 김희선, 『라면의 황제』는 『라면의 황제』, 자음과모음, 2014; 황진순, 『라면과 스테이크』, 발해, 2007에서 취하였다. 텍스트는 다양한 라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주인공을 청소년층에서 중장년층,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취하였다. 값싸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변하지 않는 식품’인 라면이 작중인물의 상황과 라면의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텍스트를 염색하였다.

03 레이먼드 윌리엄스, 김성기·유리 역, 『키워드』, 민음사, 2010, 416쪽.

04 위의 책, 417~418쪽.

본 고에서 취한 ‘낭만’은 ‘과장’과 ‘자유로운 해방된 상상력’ 그리고 ‘진정한 감정’이라는 속성이다. 진정한 감정은 ‘진정한 관계’ 혹은 ‘로맨스’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라면’은 자유롭고 역동적인 낭만의 속성을 ‘별첨스프’로 취하며 맛을 낸다. 낭만 혹은 낭만성은 현실의 장벽을 넘고자 하는, 넘을 수 있는 정동의 총체이다. 우리 시대의 먹거리인 ‘라면’이 현실을 어떻게 살고 견디며 현실 너머 우리의 ‘로망’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따르면서 생동하는 우리네 삶의 풍속 folk-cultures을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예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2. 라면, 정체된 현실의 낭만적 모색

‘라면’의 태생은 소박하다. 그저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한 끼의 양식으로 충분했다. ‘꿀꿀이죽’을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음식인 ‘라면’은 맛있고 가격까지 싸게 매겼기⁰⁵ 때문에 본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음식이었다. 김 숨의 「럭키슈퍼」와 「내 비밀스런 이웃들」에 등장하는 ‘라면’은 가난한 자들의 정체된 현실과 불안을 환기한다.

「럭키슈퍼」의 ‘럭키슈퍼’는 ‘슈퍼마켓’이 유행처럼 붙여지던 시절에 ‘상회’나 ‘식품’같은 어딘가 촌스럽고 낡은, 변두리 냄새를 물씬 풍기는 낱말을 붙이는 대신 ‘슈퍼Super’임을 내세웠던 시절(80년대식)에 탄생했다. 거대해 보이는 간판 아래 소박한 꿈을 품고 시작했으나 곧 진정한 ‘슈퍼’가 이웃에 생기며

05 김정현·한종수 지음, 「라면의 재발견」, 2021, 62쪽. 1963년 9월 15일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이 세상에 나왔다. 1958년 일본에서 라면이 개발되어 나온지 5년 만이고, 스프 별첨 라면이 등장한 지는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삼양라면의 가격은 10원이었다. 라면 개발의 결정적 계기가 된 꿀꿀이죽 가격의 딱2배였다. 당시 담배 한 갑이 25원, 김치찌개 백반이 30원, 커피 한 잔이 30~35원, 짜장면이 40원 정도였으니,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다. 위의 책, 61쪽.

‘럭키슈퍼’는 힘들어진다. 열악한 자본에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럭키 슈퍼는 ‘있는’ 물건보다 ‘없는’ 물건이 더 많고, 물건을 보관할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에 점점 손님이 줄어들고 수익은 절망적이다. 보관이 쉬운 식품 중심으로 운영하고, 유통기한을 조작하며 버틸 뿐이다. 팔고 먹고 보관하기에 가장 용이한 식품이 ‘라면’이다.

라면 한 봉지, 과자 한 봉지를 팔더라도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도 불변하는 엄마의 신조이자, 다짐이며, 의지다. (286)

돈통 속 동전들을 세고, 라면을 한 봉지 끓여 먹고, 마른 오징어 다리에 달라붙은 흡반들을 떼어 먹은 것 밖에는 …… (308)

그는 라면 두 봉지와 소시지, 소주 두 병, 달걀 두 알, 맛동산 한 봉지를 집어 든다. (310)

‘라면’은 가난의 상징이다. 음식 재료인 ‘라면 한 봉지’를 팔아서 이문례 씨를 거의 남길 수 없다. 유통기한을 조작해서 팔아도 별 탈이 나지 않는 식품인 ‘라면’은 호구지책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식품이다. 화자네 고객들은 주로 철로 저 너머에 사는 사람들로 생노가다, 파출부, 백수건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모두 근근이 하루를 버티나간다. 라면 이외에도 사나흘은 지난 소시지와 어묵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사가서 부쳐 먹고, 볶아 먹고, 끓여 먹고,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한다. 다만 ‘심지어 콩나물 백 원어치도 외상을 달고 사가는’ 경우가 많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화자에게 허락된 음식인 ‘라면’과 검은 비닐봉지에 감추듯 사들고 가는 그들의 ‘라면’은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

레를 품고 있다.

화자의 엄마가 적자를 탈출하고 차별화된 물건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물 좋은 ‘생태’를 마련해 오기도 했으나 잘 팔리지 않았고, ‘동태’로 만들 수도 없어 망설이다 크게 손해를 봤다. 버리기 아까워 기생충이 똥똥 떠다니는 생태찌개를 억지로 먹이다 동생이 병이 난 이후 의욕을 접었다. 아버지는 실직 상태이다

라면을 한 봉지 끓여 먹는다. 이마를 흰히 드러내놓고 잠든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라면을 건져 먹는다. 라면 국물이 이마로 튀는데도, 가게가 떠나가도록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는데도 아빠는 깨어날 줄 모른다. (306)

화자는 가난의 이유를 ‘유통기한이 지난’ 실업자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현실을 벗어날 방법은 아빠가 다시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이다. 아빠는 1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백수가 된 날(즉 아빠의 유통기한 날짜 1985년 3월 13일) 이후 (3년하고도, 딱 162일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로 잠만 잔다. 아빠는 자신감과 감각을 상실한 노인과 같다. 아빠는 “라면 국물이 이마로 튀는데도” 못 느끼고 죽은 듯 잠만 잔다. 낮엔 잠자고 밤엔 ‘돈통’에 손을 대는 아빠의 이중성을 알고 난 이후 엄마는 절망하고, 마침내 결단한다.

엄마의 손이 쏘고 지나가서인지, 아빠의 이마에 새겨진 유통기한 날짜가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또렷하다.

“지금부터 유통기한 날짜를 지울 거다.”

“……?”

“새로 새겨 넣으려면 먼저 깔끔히 지워 버려야겠지.”(…중략…)

유통기한 날짜를 지우고, 새로 새겨 넣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약품들이다. 엄마는 언제 저런 것들을

다 준비해둔 걸까.

기껏 우주로 날려 보낸 동전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소리 …… 옥상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하다.(322)

엄마가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엄마는 “아빠의 이마에 새겨진 유통기한 날짜”를 지우는 수술을 감행하기로 한다. 다소 기괴하고 황당한 발상이나,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결말임은 분명하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실직은 세상이 재단한 숫자의 기입(유통기한)을 순순히 따른 재앙이기 때문이다. 재앙은 피해야 한다. 재앙의 지속은 옳지 않다. 아빠, 그는 감각과 의욕을 잃었다. 늙어간다는 데 대한 추상적인 느낌은 바로 타인의 시선에서 나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사회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사건들이 노화에 대한 느낌을 우리의 의식 속에 만들어 넣는 것이다. 노화는 감정이다.⁰⁶ 더 내려갈 곳이 없는 험겨운 현실에서 가장인 ‘그’에게 부여된 폭력적 유통기한을 정상적인 시한으로 늘릴 수 있다는 엄마/아내의 생각은 해방된 상상력인 ‘낭만적’ 발상이다. 이후, “동전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소리 …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하다”는 환청은 실천 가능한 상상의 메시지이다.

「내 비밀스런 이웃들」의 화자 ‘나’는 대형 마트의 시간제 계산원 일을 구하기 위해 나선다. 8년 전 직장을 그만둔 뒤로 살림만 하고 지내던 그녀가 재

06 데이비드 브르통, 홍성민 역,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동문선, 2003, 176쪽.

취업의 전선에 나선 까닭은 실직의 위기에 몰린 남편의 동태가 심상치 않은 데 있다. 막연한 임신의 꿈을 접은 것이다.

소설의 분위기는 황량하다. 42살의 경력단절녀인 화자가 사는 20년도 더 된 허름한 다세대 주택을 자주 찾아드는 사람은 장애인 아들을 동반한 주인 할머니뿐이다. 주인 할머니는 아들 수술비 마련을 위해 전세금 천만 원 인상을 요구한다. 그녀는 화자를 보면 “뭐든지 아껴 써야 해” “한순간이야” “조심해 조심하라고!”를 외치며 불운이 너희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출근할 때 입은 양복을 그대로 입고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신다.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TV만 본다. 부부는 따뜻한 밥상을 거의 나누지 않는다. 밥은 냉동실에 있다. ‘나’는 유통기한이 지난(사실 지난 줄도 모르는 채) 어묵 한 봉지를 냄비에 쏟아 넣고 끓인다. 베란다에는 일주일째 건지 않은 빨래가 그대로 걸려 있다.

남편은 TV를 보며 “오늘 밤 그들은 그곳으로 갈 거라더군” 독백 같은 말을 한다. 그는 부당한 해고에 저항해 거리로 나선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듯 하나 ‘그들’과 ‘그곳’으로 거리를 두며 망설인다. 현실을 회피하듯 부부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일요일에는 자가용을 몰고 마트 Mart에서 “천 밀리리터 우유와 식빵, 맥주 스무 병, 삶은 문어 다리 한쪽”을 쇼핑하기도 하나 이러한 소박한 삶마저 언제까지 가능할까 불안하다.

화자는 전세금을 빌리기 위해 ‘지하철을 세 번이나 갈아타고’ 부모님 댁을 찾는다. 화자의 부모님은 이혼한 큰오빠의 두 아들(고등학교, 중학생)을 키우며 살고 있다. 화자가 차마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조카들이 먹는 ‘라면’ 때문이다.

참외를 먹다 말고 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식탁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조카들이 나를 뻘뻘 바라보았다. 나는 조카들이 무서웠다. 조카들이 큰오빠를 꼭 닮았기 때문이었다. …… 조카들은 라면을 먹은 뒤 각자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259)

유가와 곡물값의 급등 때문에 라면값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 몰랐기 때문에 라면을 두 박스나 샀다. (263)

늙은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연금에 의지해 손자 둘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화자 부모님의 삶은 고달프다.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잘 먹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있는 조카들은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운다. 어머니는 말없이 흐느낀다. 화자가 ‘무서웠다’고 표현한 ‘조카들’과 ‘큰오빠’의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염치와 죄의식, 불안을 환기하는 공포와 연민의 경계에 선 감정이라 해석할 수 있다. ‘라면’은 불안한 현실을 알고 공감하게 하는 매개로 작동한다. 이후 승용차를 타고 마트에서 일상을 구매하는 부부의 외출은 사라진다. 대신 비상식량 인양, ‘라면’을 박스^{box}로 쟁여둔다.

그날, 남편은 라면 한 개를 끓여 먹고, ‘나’도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남편은 집을 떠나 그들과 연대한다. ‘그들’과 ‘남편’ 그리고 ‘우리’는 하나이다. ‘나’는 이제 촛불 집회 현장을 담은 TV 속에서 그들 너머로 남편을 찾는다. 그리고 누군가 옥상에 던져 버리고 간 ‘자라’를 거두어 욕조에 담는다. “전경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도 빌딩은 침묵”하고 “빌딩으로 통하는 입구들은 전경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다. 혼자 싸우기엔 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함께 움직일 수 밖에 없다. ‘해방된 상상력’을 품은 낭만주의적 현실 포착력이다. 살기 힘들수록 더불어 살며 견뎌야 한다는 ‘진정한 관계’ 의식이다. ‘나’는 남편이 밖에서 빌딩의 문을 열고자 애써는 동안 ‘자라’

를 살리고자 '자라'의 수를 세고 또 헤아린다.

3. 라면, 로맨스로 완성된 대중의 기호

황진순의 『라면과 스테이크』는 '라면'의 '로맨스' 생산 현장을 포착한다. 이 소설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타일을 추구한다. '라면'과 '스테이크'라는 대비적 기호처럼 상이한 조건의 남녀가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는 '로맨스'이다. 가난한 연상의 여성(나미선)과 연하의 부잣집 도련님(서강우)을 이은 사랑의 매개에 '라면'과 나미선의 '라면 가게'가 있다. 부모의 불화 속에서 자란 서강우는 남녀의 진정한 사랑 방식을 배우지 못했다. 아버지는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슬과 우울에 절어 지냈다.

결핍에 갇든 그는 허술했고 나미선의 존재는 강렬했다. “우리 집에서 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지!”라고 말하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그녀는 강우를 한 순간에 사로잡았다. 어머니와 사뭇 다른 젊고 활기차고 섹시한 그녀가 끓여주는 '라면'의 의미는 각별했다. 이는 아버지라는 장애로 인해 서강우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 어머니와의 유사 공생적 관계⁰⁷라는 시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이에게 엄마가 제공하는 식사는 예외없이 감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적절한 행동 규범을 사회화하고,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한다.⁰⁸ 나미선은 강우에게 일정 기간 어머니의 대체 역할을 한 셈이다. 나미선의 존재는 어머니, 누나, 연인의 감정을 갖게 하는 복합적 총체이다. 강우에게 라면은 역동적

07 로널드 르블랑, 조주관 역, 『음식과 성』, 그린비, 2015, 47~48쪽.

08 데버러 립턴, 박형신 역, 『음식과 먹기의 사회학』, 한울, 2015, 76쪽.

이고 독립적인 그녀의 등가이자 관계, 위안, 안도감 등으로 기능한다.

한 개인이 무엇을 먹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는 자신을 사회화시킨 조직과 깊이 관련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조직은 가족이다. 그런데 살펴보면 가족이라는 단위도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 아니다. 하나의 가족 단위는 이웃이나 지역사회 안에 존재한다.⁰⁹ 강우에게 나미선의 라면 가게, 분식집은 가족의 사랑을 체험하게 한 장소^{place}이다. 그가 그녀에게서 보고 느낀 경제적 독립의지와 주체적 삶의 태도는 그들의 사랑을 지키고 키워갈 수 있는 기반, 낭만적 동력으로 작동한다.

그래, 나 학벌지향주의자다! 여력만 되었다면 난 계속 공부를 했을 거야. 그래서 너처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까부는 놈들은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신 오지 마! (49쪽)

대학을 가면 당신 앞에 뗏목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군대를 다녀오면 당신에게 남자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어림없었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난 당신보다 늘 네 살이 어린놈에 불과했어. 난 당신에게 남자가 되기 위한 일념으로, 발악하는 심정으로 살았다. (...중략...) 당신은 날 아주 잊어버린 것 같이 굴었어. 난 죽을 만큼 겁이나서 허겁지겁 당신에게 달려와야만 했지. 내가 아직도 당신 곁에서 얼떨거리고 있는 걸 알아달라고 말이야. (96~7)

서강우는 나미선의 라면을 먹으면서 성장한다. 그녀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갔고 군복무를 끝내고 학업에 복귀한다.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서강우와 나미선의 관계는 우리의 상식적

09 김철규, 『음식과 사회』, 세창출판사, 2020, 63~64쪽.

인 추측을 깨부순다. 느긋한 쪽은 나미선이고 서강우는 그녀에 닿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한다. 전형적인 로맨스 소설의 경우와 같이 멋진 남자는 자신이 멋진 줄을 모른다. 남자는 오만할 정도로 자신감 있는 성격과 자세, 야성미 넘치는 건장한 육체를 갖추고 있다. 그런 그가 정작 매력적인 이유는 가슴 아픈 상처를 간직한 ‘불쌍한 남자’로 한없이 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면에서 발산한다.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남자들이 여성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이상적인 완벽남 즉 나라는 대상이 있음으로써 완성되는 남자를 동경한다.¹⁰ 황진선은 이러한 구도를 십분 활용한다.

불안함을 느끼기는 나미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미선도 그를 사랑하고 흔들리나 다만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그와 함께 하는 미래를 상상하지 않을 뿐이다. 사업 부도로 감옥에 가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시급했다. 나미선은 열심히 노력했고 비록 전 월세를 주고 입주하였으나 40평도 남는 가게의 어엿한 사장이 되었다. 이에 강우도 자극받아 레스토랑 ‘오타쿠’의 사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의도하지 않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여자 주인공이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성공한 남자와 만나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의 상향된 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현실은 표지 ‘라면’과 ‘스테이크’로 드러나는 계층/계급 차이가 압도적이고 확연하나 이를 부수고 새롭게 질서화하는 전략이 정교하고 섬세하다. 그들의 로맨스는 선명하다. 부모 세대가 범했던 과오, 정략결혼의 방식을 결코 답습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 사랑의 첫 자리에 ‘라면’이 다음엔 ‘육체적 만남’이 놓인다. 둘은 해운대에서 만나 거침없고 뜨거운 육체적 나눴(情事)을 갖는다. 평범한 연애 방식으

10 이주라·진산, 『로맨스』, 북바이북, 2015. 86쪽.

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순간이 강우에겐 특별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진척되지 않는다. 육체적 관계로 인한 책임의 형식인 결혼은 서로에게 구속임을 아는 까닭에 결코 서둘지 않는다. 강우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연애와 사랑이다. 진정한 결혼에서 육체적인 하나 되기는 정신적 하나 되기를 확정하는 순서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한 결혼은 사랑, 즉 아모르의 영적인 충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결혼이 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풍토였던 중세의 경우에도 개인 대 개인의 사랑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으나 중세의 낭만적인 사랑, 즉 눈과 눈의 만남에서 오는 사랑은 대단히 높은 정신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다.¹¹

두 사람의 사랑은 서강우의 오랜 상처, 애정없는 부부의 자식이라는 모순의 역사를 씻어내릴 수 있는 순결한 만남이다. 두 사람의 솔직하고 대담한 해방된 본능은 자유롭고 실존적 관계를 향하여 새로운 현실원칙을 생성한다. 사랑과 사랑이 요구하는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관계가 성욕과 애정의 결합에 근거한다¹²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나미선은 자신의 가게를 지키고 언제나 그곳에 있다. 그녀에게 결혼 중매가 들어오고 강우는 질투한다. 강우 역시 '부산에서 내로라하는 금싸라기 땅에만 건물을 몇 채씩이나 가진 아버지를 둔 여자'인 '인지'의 지속적인 유혹과 고백을 받기도 하나, 서로를 대신할 수 없다는 확신을 흔들지 못한다.

“나는 내 현실인 가게도 중요해. 그래서 네게도 <오타쿠>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11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대담, 이운기 역, 『신화의 힘』, 21세기북스, 2017, 344~345쪽.

12 H. 마르쿠제, 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프로이트 이론의 철학적 연구』, 나남, 1994, 66쪽.

“몇 번을, 얼마나 더 말해야 해. 내게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
까짓 식당 하나쯤은 망해도 그만이고, 말아먹어도 하나 아쉬울 것 없단 말이야.”

의자에 올라선 탓에 그녀를 올려다봐야 하는 강우의 눈매가 단단해졌다. 때마
침 불어온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휩쓸고 지났다. 미선은 바람에 헝클어진 그의
머리칼로 손을 뺄으며 입을 열었다.

서강우, 그게 바로 너와 나의 너무 다른 입장차이야. 난 말아먹어도 안 되고 망
하는 것도 안 돼. 나는 날마다 겁이 나. 네게 안주해버리고 싶을까 봐, 네가 가진
것에 기대버릴 것만 같아서, 서강우의 안에 날 포함시키고 싶을까 봐 겁이 난다
고. 이해가 안 돼? (249)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음식을 소비하는 것은 장식의 가치를 지닌다. 그는
음식을 항상 다른 어떤 것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테면 음식은
계급구조를 재현하는 사회의 제유이다.¹³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구분의 원리
일 수는 없다. 당면한 경제적 논리에 가깝다. 음식은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즐
거움을 즉각 제공하고, 거대한 경제체계를 유지한다.¹⁴ 두 사람은 각자가 처
한 계급/계층적 위치를 지키고 견디면서 유동하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사람
의 창조적 의지를 드러내고 지켜낸다. ‘라면 가게’와 ‘레스토랑’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욕망을 탐닉하고 사회적 접촉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 장소를 대중들과 공유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다졌고 서강우 역시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강우에게 ‘연애라는 미쳐 날뛰는 에너지’는 아버지의 지배리는 중력권에

13 조안 핑켈스타인, 박형신 역, 『레스토랑의 사회학』, 한울, 2019, 46~47쪽.

14 위의 책, 263쪽.

서 벗어나려는 원심력으로 작용한다.¹⁵ 두 사람의 사랑은 대등한 만남이고 진정한 독립선언이다. ‘라면’을 매개로 한 이 소설에서 로맨스의 결말은 결혼이 아니다. 만약에 나미선이 어린 그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나약한 여성이었다면 이같은 진정한 로맨스를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생을 이기고 성공한 당찬 여성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개성을 무너뜨리고 그만을 바라보는 진부한 신데렐라 스토리로 빠졌을 것이다. 젊은 그들의 로맨스 전략에 충실히 기여한 것은 ‘육체적 매력’이다. 소위 ‘육체자본^{habit}’이 기존의 소설에서 육화된 계급¹⁶의 표지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순수한 연애를 보증하는 에로스의 공간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나미선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의 계급(중산층)이 하층계급으로 몰락하는 위기를 겪었고 극복한다. 작은 라면집을 열었고 손님들의 입맛에 부응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다. 그녀의 성실로 끝내 자영업자 고용주가 됨으로써 자신의 계급에서 벗어난다. 개인주의화된 탈계급이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활 전망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¹⁷를 쟁취한 것이다. 그들의 로맨스는 ‘라면’이 불러들인 호쾌한 이야기이다. 소설은 ‘라면’이 계급이동과 사랑의 성취를 가능하게 매개임을 증거한다. 『라면과 스테이크』가 성취한 담대한 로맨스는 ‘라면’이 담보한 대중성, 곧 대중의 기호를 반영한다.

15 우에노 치즈코, 이승희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66쪽.

16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96, 722쪽.

17 율리히 백, 홍성태 역,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1997, 160쪽.

4. 신화가 된 라면, 불멸의 로망

김희선의 「라면의 황제」에서 ‘라면’은 사라진다. 라면이 죽었고, 라면(만)을 사랑하던 이도 고인이 되었다. ‘라면’은 애도의 대상이자 제수齎로 등장한다. 소설은 라면과 라면을 향하던 이들을 깊이 애도하며, 라면의 부활 가능성을 모색한다. 라면은 죽어, 죽을 수 없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신화’ 불멸의 ‘로망’으로 거듭난다.

라면 유해론은 20세기 후반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기름에 튀겨 건조시킨 면과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수프가 수만 가지 질병을 비롯하여 우울증이나 폭력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까지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줄을 이었으며……. (79)

김희선의 「라면의 황제」는 안/밖에서 떠도는 라면의 유해성과 위안성을 서사의 장에서 맞세워 라면을 향한 팽팽한 풍문을 종결짓고자 한 것일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라면의 절멸을 단행한다. ‘일인당 라면 소비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거주자의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다’는 경제전문가의 보고서에서부터 ‘어린 시절 라면 소비량과 명문대 진학률은 반비례한다’는 컨설팅 업체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3백 미터 이내의 라면 가게를 모두 추방하자는 발의가 실행된 것이다.

라면의 탄생 이후 라면의 유해성이 끝없이 제기되곤 했다. 현대사회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질병과 범죄의 주범으로 라면을 지목한다. 라면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 우리의 경우 1963년 9월 15일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

면인 '삼양라면'이 세상에 나왔다.¹⁸ 60년 정도이니 두 세대에 걸쳐온 것인데 체험적 시간은 아주 길다. 우리에게 라면이 없는 시공간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¹⁹

이 소설의 흥미로운 점은 라면이 사라진 이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라면은 사라졌기에 끝없는 탐구 대상으로 우리들의 그리움으로 떠돈다. 삶과 예술에 대해 낭만주의가 관류하고 있는 현상은 '과거에 대한 동경'과 특정한 종류의 '근거 없는 불안'이다.²⁰ 라면이 사라졌다는 전제가 불러일으킨 반응은 강렬하다. 라면과 함께했던 '과거 시간에 대한 동경'과 이 대체 불가의 음식이 진정 사라졌을 때 느끼는 막막한 감정인 '불안'은 유행처럼 떠돈다. 라면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자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장애이다. 소설은 라면의 절멸이란 승부수를 통해 라면의 불멸성을 역설하는 계기로 삼는다. 라면의 낭만성을 극대화한 '신화성'의 시작이다.

과거지향적인 향수와 동경의 사례가 떠돌며 라면은 라면을 사랑한 사람들과 라면에 얽힌 이야기와 엮이면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하다. 라면의 역사는 화려했고 요긴한 우리들의 식량이었음을 확인하는 서사로 이어진다. 라면은 전성기에 "연간 약 천억 개 이상이 소비"되던 "최고의 인기 식품"이었고 "세상을 구원한 식품"이라고 칭송되곤 했다. 2010년 아이티를 강타한 대지진 당시 난민에게 제공된 음식 역시 '따뜻한 라면'이었고 2005년에 우주로 진출하여

18 1958년 일본에서 라면이 개발되어 나온 지 5년만이고, 스프 별첨 라면이 등장한 지는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삼양라면의 가격은 10원. 꿀꿀이죽 가격의 딱 2배였다. 김정현·한종수, 『라면의 재발견』, 따비 2021, 61쪽.

19 오늘날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의 안도 모모후쿠가 1958년 개발한 것이다. 1963년 한국의 삼양사는 일본의 기술을 도입해 국내 최초로 치킨 라면을 출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혼분식 정책 덕분에 라면의 매출은 급속하게 늘어나 1969년에 연간 1,500만 봉지가 판매되었다. 밀가루를 활용하지는 분식 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라면회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에 14.9kg에 불과했던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은 1970년 18.8kg, 1975년 30.1kg으로 급증했다. 김철규, 『음식과 사회』, 세창출판사, 2020, 75~76쪽.

20 이시야 벌린, 강유원·나현영 역, 『낭만주의의 뿌리』, 2005, 170쪽.

이후 2015년 중반까지 “우주 비행사의 필수 식량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라면은 전성기의 정점을 찍은 후 추락한다. 테러리스트에게 공급할 식량으로 오해되고 악의 온상이거나 죄와 타락의 이미지로 얼룩진다. 편의점 유통창 너머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본다. 라면 국물이 ‘반사회성’과 ‘폭력성’을 부추긴다고 매도된다. 요리된 음식, 특히 기름으로 요리된 음식은 ‘건강에 나쁜’ 것으로 간주 되었고 야채와 같은 날 음식은 건강에 좋은 것으로 고려되는²¹ 맥락이다.

오늘날 음식은 하나의 병원체, 즉 질병과 건강 악화의 한 근원으로 제시된다. 어떤 음식들은 ‘건강에 나쁜’ 것으로 범주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지방, 염분,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혼합제와 방부제 같은 건강 위협 물질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증식시킨다는 측면에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이들의 정크푸드 소비는 과잉 활동과 청소년 비행과 같은 행동 ‘장애’와 ‘반사회적’ 행동과 연관 지어져 왔다.²²

궁지에 몰린 라면을 지키기 위한 보루^倮는 라면을 체험한 생생한 기록장에서 마련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의 저자인 ‘김기수’이다. 그는 기인과 달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27년간 라면만 먹으며 살아왔다는 증거로 스물일곱 권의 금전출납부를 제시하기도 한다. 결국 기네스북 등재의 영광은 박모 노인(2005년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 출연)에게 돌아간다. 박모 노인도 진정 살아있는 전설답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못 먹게 되었는데 그 당시 ‘삼천만의 영양식’인 ‘냄비에 든 라면’을 보고 입맛

21 데버라 럽턴, 앞의 책, 155~156쪽.

22 위의 책, 147쪽.

이 돌고 한 그릇 다 먹고 국물까지 후루룩 마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서 추수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박 노인 역시 26년 11개월 간 라면을 구입해 온 영수증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라면을 먹고 영수증 정리를 잘해 놓아 기네스북에 등재된다. 이후 천수를 누린다.

소설 속 라면 탄압은 규율 지상주의, 건강 획일주의자들의 발상임을 알게 한다. 맛있는 음식을 찾고 익숙한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은 '건강한 본능'이고 이를 건강 논리로 가로막는 것은 부분을 확대해석한 '섬약한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을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라면 레시피를 탐구하기도 한다. 비록 소수의 모임이지만 그들의 만남은 진지하다.

라면동호회 본부(알고 보니 그 컨테이너 박스였다)가 경찰의 급습을 받아 와해됐다는 말도 있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어쨌든 거기서 경찰은 몇 개의 솥과 식용유 두 통, 그리고 밀가루 서너 포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라면이 사라졌느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었다. 라면은 그 후로도 언제까지나 명맥을 이어갔고(지금도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출고 읍씨년스러운 날이면 어딘가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가 지표를 뚫고 피어올라 지나가는 이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있지 않은가) 김기수씨의 기일엔 매년 꽃이 놓였다. 물론 어찌다가 간혹 놓이지 않는 해도 있었지만 말이다. (105)

라면을 지상에서 감추면 범죄가 사라질까? 라면이 없던 시절의 폭력과 우울의 역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추운 겨울날 몸과 마음을 녹여줬던 라면의 열큰한 국물맛을 포기할 수 없는 라면 애호가들에게 라면을 대체할 음식을 찾기란 어렵다. 아니 불가능할지 모른다. 라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라면은 이전에도 ‘국민 솔 푸드’²³ 였고 앞으로도 그걸 것이라는 암시는 굳건하다.

낭만주의의 낙관적인 변형은 끊임없는 전진과 인간 본성의 확장에 있다. 모든 무미건조한 진리,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규범과 제도의 파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욱 해방하고 더욱 더 넓고 깊고 자유롭고 생기에 넘치게 우리의 무한한 본성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낭만주의자들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고 행동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본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노력은 행동이며 행동은 운동이고 운동은 완결되는 법이 없다.²⁴

“이유? 아니, 그거야 당연한 거잖아. 라면 가게를 하나까 하루 세끼 라면만 먹은 거지. 난 지금도 하루 세끼 만두만 먹는다고.” 그러면서 노인은 별 싱거운 사람다 보겠다는 듯 혀를 찼다. (104)

소설에서 단행된 ‘라면’ 금지령의 불합리성은 경제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더욱 선명하다. 라면을 왜 먹을까 특히 누가 더 많이 먹을가의 문제는 취향의 문제이자 사회경제학적 문제로도 살펴봐야 하는 포괄적인 시선을 요구한다. 음식은 사고, 팔고, 먹고, 사는 삶의 경제적 순환 선상에 놓여 있다. 멈출 수도 막을 수도 없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am what I eat* 라는 서양 격언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인데 내가 먹는 것은 나를 돌

23 「기획, 라면은 어떻게 문화가 되었나, 한겨레, 2021.4.17.

24 이사야 벌린, 강유원·나현영 역, 『낭만주의의 뿌리』, 이제이북스, 2005, 173쪽.

러싸고 있는 사회구조와 관계망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²⁵

라면 장사는 라면을 많이 먹을 수 밖에 없고 만두 장사는 만두를 훨씬 많이 먹을 수 밖에 없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청소년이 매끼를 슬로우 푸드를 먹으며 건강 챙기기를 우선할 여유는 없다. 돈도 많고 시간이 있으니, 신상 라면의 독특한 맛을 외면할 이유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라면 사랑을 막을 대책이 있거나 한 것일까.

지상에 완전히 안전한 먹거리가 있을까. 야채와 같은 식품도 믿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자연' 그 자체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불안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방사능처리와 유전 공학과 같은, 실개 부패되지 않는 '신선한' 식품을 생산하는 기술의 발전은 고유성과 인공성, 즉 패스트푸드나 편의 식품과 자연식품 간의 경계를 흐리게 해왔다. 모스는 이러한 음식을 프랑켄푸드 franken-food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그러한 처리 과정을 통해 '신선함'을 유지하는 식품 혐오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고 시사한다.²⁶

앞에서 살핀 '라면'만 먹고 장수한 두 노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라면은 체질에 따라 상상도 못할 효용을 드러내는 설명하기 힘든 음식이다. 간단하게 해석할 수 없다. 맛있게 즐겁게 먹으면 사람에 따라 다른 소화 능력과 효용을 보여주는 신비한 음식이다. 라면과 우리 혹은 삶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라면'은 '신화'이다. 신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자신 속에 구현하는 비합리적인 것이고 형언키 어려운 것들을 요약한다. 이 모든 과정의 심오한 비밀을, 그 자체로 어떤 무한한 방향을 가리키는 심상들을 통해 전달한

25 김철규, 『음식과 사회』, 세창출판사, 2020, 65쪽.

26 데버라 럽틴, 앞의 책, 176쪽.

다.²⁷ 신화가 된 라면은 매혹적이다. 우리 안의 라면은, 불멸의 로망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승, 「내 비밀스런 이웃들」, 『럭키슈퍼』, 『간과 쓸개』, 문학과지성사, 2011,
김희선, 「라면의 황제」, 『라면의 황제』, 자음과모음, 2014.
황진순, 『라면과 스테이크』, 발해, 2007.

2. 단행본 및 논문

이샤야 벌린, 강유원·나현영 역, 『낭만주의의 뿌리』, 이제이북스, 2005, 198쪽.
「기획, 라면은 어떻게 문화가 되었나」, 한겨레, 2021년 4월 17일자.
테버라 립턴, 박형신 역, 『음식과 먹기의 사회학』, 한울, 2015, 178~190쪽.
김철규, 『음식과 사회』, 세창출판사, 2020, 65쪽.
김정현·한중수, 『라면의 재발견』, 따비, 2021, 61쪽.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대담, 이윤기 역, 『신화의 힘』, 21세기북스, 2017.
조안 핑켈스타인, 박형신 역, 『레스토랑의 사회학』, 한울, 2019.
울리히 벡, 홍성태 옮김,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1997.
우에노 치즈코, 이승희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H. 마르쿠제, 김인환 역, 『에로스 and 문명—프로이트 이론의 철학적 연구』, 나남, 1994.
이주라·진산, 『로맨스』, 북바이북, 2015.
레이먼드 윌리엄스, 김성기·유리 역, 『키워드』, 민음사, 2010, 416~418쪽.
로널드 르블랑, 조주관 역, 『음식과 성』, 그린비, 2015.
다비드 르 브르통, 홍성민 역,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동문선, 2003, 176쪽.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96.

27 이샤야 벌린, 강유원·나현영 역, 『낭만주의의 뿌리』, 이제이북스, 2005, 198쪽.

Ramen and Romanticism

Jung Mi-Sook*

Ramen is a popular food. No other food would be often enjoyed and much loved by people than ramen. It's safe to say that there's no one to eat the noodles, regardless of generation, gender, class or status.

However, it is also definite that people have an ambivalent feeling about ramen, that is, love or hatred. In other words, ramen is favored as a very affordable, delicious instant food and, at the same time, infamous as a junk food that does harm to health and beauty.

There are two opposite views of ramen. One is that ramen is a 'meal' which is un-nourishing, cheap, and thoroughly class-dependent. The other is that the noodles is a 'decent food' which everyone extremely loves. By the way, it is a wonder how ramen is depicted in novels. This paper is a sort of looking into the depiction. Texts that this study reviewed have ramen as a subject to develop a plot. In the texts, above all, ramen is placed on the edge and, simultaneously, something that tries to transcend it. Besides, the noodles is seen as a real sign of poverty or a medium of relationship or ideals. In the texts, meanwhile, ramen is victimized by violent logics to be expelled from food.

How or what ramen looks like in the novels reviewed here varies depending on situation. To name a few, more specifically, the noodles is an orientation itself towards actively dynamic changes breaking down the contextual frames of suppression, discrimination, or separation in which characters are stuck. Romanticism or romance with which the novels imbue ramen is sort of an entire affect that represents the will to cross the barriers of reality or confidence in that move. Strips of the noodles are, in a profound sense, explicitly dynamic and implicitly political. Briefly,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learn how ramen's romanticism encounters with the reality, goes beyond that reality, and how it comes to be reborn as an immortal 'myth' or 'romance' for all by tracking a temporal journey of the noodles.

*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Key words ramen, romanticism, food, affect, junk food, romance, myth

이 논문은 2021년 5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6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